

일부 노인의 구강내 상태와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박 종 희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Oral Status and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in Elderly

Jong-Hee, Park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Gimcheo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recent proliferation of the aging population, oral health care is closely related to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is very important being recognized.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to determine whether the oral health of the elderly whether oral self-perception of health and any related wish.

Methods: Surveys to May 20 from April 15, 2011, subjects were elderly and living in Daejeon and Chungnam 277 people were examined. All the statistics using SPSS 18.0 for the determination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Results: 1. Recognized, the most common oral health, self-aware bad the state (46.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lf-Oral health status, remaining natural dimensions or the intra-oral prosthetic,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More teeth, residual phase, in accordance with intra-oral prosthetic mandibular Not all dentures, partial dentures, full dentures net self-perception of oral health status better recognized.

2. According to the type of partial dentures, oral health status self-phase, mixed mandibular removable, fixed, fixed,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 order to recognize that good oral health, self-aware state, showed between them,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3. Of variable dimension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maining natural maxillary and mandibular prosthetic maxillary prosthetic mandibular partial dentures, age income, a positive correl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The case of the mandible, the mandibular prosthetic mandibular partial denture, maxillary prosthetic, the amount of income were correlated.

4. Intra-oral Prosthetics correlation variables in the maxillary, mandibular prosthesi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come, age was negatively correlated, if the income of the mandible. Maxillary partial denture has nothing to do with the variable portion of the mandibular denture, age was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Conclusion: Satisfaction and how now it is important simply to live as long, but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교신저자	성명	박 종 희	전화	010-8817-6087	E-mail	jhdent59@hanmail.net	
	주소	경북 김천시 삼락동 침찬대학교 치기공학과					
접수일	2013. 2. 13		수정일	2013. 6. 7		확정일	2013. 6. 21

quality of life, sometimes with an aging population and the increase of soybean To buy the loss of teeth causes the typical health problems of the elderly. Elderly people of any relevant oral health and the oral cavity by the state to determine whether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oral health education was more residual value, intra-oral prosthetics there is no more self-aware, the oral health status is good to recognize that appeared. Strengthen the oral health educ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is thought to be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idual.

◎Key words : Elderly, Oral status, Self-perceived Oral health

I. 서 론

최근 급격한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강건강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구강 건강은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며,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전미진외, 2009).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70년 3.1%이었던 것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14.0%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10명중 2명은 노인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령 인구의 80%가 저작 곤란과 기존 보철물의 통증 등으로 새로운 보철물을 필요로 하지만 기존 보철물에 대한 불신감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치과 질병에 대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향이 높아 연령이 증가하면서 구강건강은 더욱 심하게 악화되고 있다(주은주, 2009).

노인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구강 건강 문제는 치아 상실인데, 치아 상실은 저작, 심미, 발음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 치아 상실로 저작이 원활하지 못하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선택 범위가 좁아져 식사의 양과 질이 저하됨으로써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발음과 외모에 영향을 줌으로써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최연희외, 2002). 그러므로 노인들의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박지혜등, 2008). 그러나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 부족으로 건강상의 요구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이 부족하

게 되는 시기이다.

국민구강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74세 노인의 자연치아수는 2003년 12.1개, 2006년 17.2개, 2010년 18.0개로 구강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 불편 호소율은 53%로 나타나 국민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하다(보건복지부, 2010).

노인들의 주관적인 전신건강 인식과 구강건강 관심이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틀니 여부나 저작 상태, 구강 내 자각 증상, 사회적 관계가 구강 건강 인식과 관련이 있다(김남희, 2003). 구강건강인식에 관련된 요인은 인구학적 요인(연령, 성별, 거주지역), 사회 경제적 요인(수입, 교육 수준, 직업, 의료보장 형태), 구강보건의식 형태(구강건강염려, 잇솔질횟수, 구강위생용품사용, 치과방문형태), 객관적 구강건강상태(잔존치아 수, 보철 상태, DMFS, CPITN) 로 보철물의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경우, 고정성 가공의치가 필요한 경우, 국소의치가 필요한 경우, 총의치가 필요한 경우의 순으로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하였다(김남희, 2003). 국민구강 건강의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은 매우 건강하다 4.7%, 건강하편 23.1%, 보통 51.3%, 건강하지 않다 18.7%, 매우건강하지 않다 2.2%이었다(보건복지부, 2010).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는 실제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로써 구강건강 증진 행위에 관련된 주요한 예측 변수이다(박명호, 2012).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저작 기능, 의치 고정 및 심미적 만족도가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인지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인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최순례 등, 2005).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건강 증진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자가 평가한 건강 상태가 임상적인 평가 결과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Cockrham et al., 1983).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는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로 노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대두되는 치아 상실은 노인들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노인들의 구강내 상태가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11년 4월 15일~5월 20일까지 대전 및 충청 남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전은 5개 구(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노은구) 사회 복지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선생님들이 설문 내용을 설명하고 응답하는 것을 확인한 후 회수하였다.

충청남도는 부여 및 금산의 초등학교 10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담임선생님께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4~6학년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어 집이나 이웃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님께 설문 내용을 읽어주고 설문 내용에 체크해 오도록 하였는데 이유는 작은 글씨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400부이었으며 회수된 334부 이었고, 이중 결측치가 많거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57부를 제외하고 27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노인의치보철사업 평가(김동기외, 2008)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기초로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일반

적 특성(성별, 나이, 가족형태, 월수입), 구강내 상태(잔존 자연치아수, 장착보철 상태),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Likert 3점 척도) 이었다.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잔존 자연치아수, 구강내 장착 보철물은 빈도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잔존치수에 따른, 장착 보철물에 따른 자가인지구강건강 상태는 교차분석 및 T(F) test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구강내 상태와 자가인지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는 상관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처리는 SPSS for windows(18.0)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77			
	Characteristics	Number	%
Gender	Male	94	(33.9)
	Female	183	(66.1)
Age	64≥	69	(24.9)
	65-74세	105	(37.9)
	75≤	103	(37.2)
Female	Couple	126	(45.5)
	Alone	61	(22.0)
	Children etc	90	(32.5)
Monthly Income	500,000≥	138	(49.8)
	510,000-900,000	65	(23.5)
	910,000-1,300,000	32	(11.5)
	1,310,000≤	42	(15.2)
Total		277	(100)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33.9%, 여자 66.1%로 여자가 많았으며, 나이분포는 64세 이하 24.9%, 65-74세 이하 37.9%, 75세 이상이었다. 동거가족 분포는 부부 45.5%, 혼자 22.0%, 기타 가족 형태 32.5%이었으며, 월수입은 50만원 49.0%, 51~90만원 23.5%, 91만원이상 130만원 11.5%, 131만원 이상 15.2%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구강내 상태

1) 잔존치아 수

조사대상자의 잔존치아 수에 있어서는 상악의 경우 1-5개 31.8%, 6~10개 25.6%, 11~15개 18.8%, 0개 17.0%,

16개 이상 6.9%이었고, 하악의 경우 1~5개 35.4%, 11~15개 23.1%, 6~10개 20.6%, 0개 10.8%, 16개 이상 10.1%이었으며 상, 하악 모두 1~5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maining teeth

				N=277		
Characteristics		Maxillary		Mandibular		
Remaining Teeth	0	47(17.0)		30(10.8)		
	1-5	88(31.8)		98(35.4)		
	6-10	71(25.6)		57(20.6)		
	11-15	52(18.8)		64(23.1)		
	16≤	19(6.9)		28(10.1)		
	Total	277(100)		277(100)		
Prosthetics	Full denture	44(15.9)		29		
	Partial denture	Removable	128(67.0)	191(69.0)	126(67.0)	188(67.9)
		Fixed	52(27.2)	11(5.8)	48(25.5)	14(7.4)
		Fixed+Removable	11(5.8)			
	No Denture	42(15.2)		60(21.7)		
	Total	277(100)		277(100)		

2) 장착 보철물

구강내 장착 보철물에 있어서는 상악의 경우 부분틀니 69.0%, 완전틀니 15.9%, 틀니없음 15.2%로 나타났고, 하악에 있어서는 부분틀니 67.9%, 틀니없음 21.7%, 완전틀니 11.4%로 나타나 상, 하악 모두 부분틀니 장착율이 가장 높았다.

부분틀니 종류에 있어서는 상, 하악 모두 가철성(상악:67.0%, 하악 67.0%), 고정성(상악 27.2%, 하악 25.5%), 가철성고정성 혼합(상악 5.8%, 하악 7.4%) 순으로 나타나 가철성 틀니 장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3. 조사대상자의 자기인지 구강건강상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인지 구강건강상태

나이에 따른 자기인지 구강건강 상태를 보면 64세 이하의 자기인지 구강건강 상태를 보통(50.7%)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65세 이상에서는 나쁘다(65-74세 47.6%, 75세이상 48.5%)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는 나쁘다(47.9%), 여자는 보통이

Table 3.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χ^2	P	
	Bad	So-so	Good	Total			
Age	64≥	28(40.6)	35(50.7)	6(8.7)	69(100)	1.840	.765
	65-74	50(47.6)	44(41.9)	11(10.5)	105(100)		
	75≤	50(48.5)	45(43.7)	8(7.8)	103(100)		

Characteristics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χ^2	P
		Bad	So-so	Good	Total		
Gender	Male	45(47.9)	39(41.5)	10(10.6)	94(100)	.836	.658
	Female	83(45.4)	45(46.4)	15(8.2)	183(100)		
Family	Couple	57(45.2)	60(47.6)	9(7.1)	126(100)	1.972	.741
	Alone	31(50.8)	24(39.3)	6(9.8)	61(100)		
	Children etc	40(44.4)	40(44.4)	10(11.1)	90(100)		
Monthly Income (unit:10,000 won)	50≥	73(52.9)	54(39.1)	11(8.0)	138(100)	12.000	.062
	51-90	30(46.2)	32(49.2)	3(4.6)	65(100)		
	91-130	12(37.5)	14(43.8)	6(18.8)	32(100)		
	131≤	13(31.0)	24(57.1)	5(11.9)	42(100)		
Total		128(46.2)	124(44.8)	25(9.0)	277(100)		

*P>.05, **P>.01, ***P>.001

다(46.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에 있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는 보통이다(47.6%), 혼자 사는 경우는 나쁘다(50.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와 같이사는 경우는 보통이다(44.4%), 나쁘다(44.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있어서는 50만원 이하의 경우는 나쁘다(52.9%)가, 51만원 이상에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나쁘다고 인식(46.2%), 보통이다(44.8%), 좋다(9.0%)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by Remaining teeth

Characteristics		N(%)	Mean±SD	F	P
Maxillary	0	47(17.0)	1.55±.65	3.001*	.019
	1-5	88(31.8)	1.48±.58		
	6-10	71(25.6)	1.67±.71		
	11-15	52(18.8)	1.75±.68		
	16≤	19(6.9)	1.94±.70		
	Total	277(100)	1.62±.64		
Mandibular	0	30(10.8)	1.46±.62	2.840*	.025
	1-5	98(35.4)	1.52±.62		
	6-10	57(20.6)	1.63±.61		
	11-15	64(23.1)	1.76±.66		
	16≤	28(10.1)	1.85±.65		
	Total	277(100)	1.62±.64		

*P>.05, **P>.01, ***P>.001

2) 잔존치 수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
 잔존치 수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에 있어서 상, 하악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악의 경우 1-5개의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1.48±.58)가, 하악의 경우 잔존 치아가 없는 경우(1.46±.62)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가장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치아수가 많을수록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구강내 장착 보철물 종류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
 구강내 장착 보철물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에 있어서는 상, 하악 모두(상악 1.88±.64, 하악 1.76±.67) 틀니가 없는 경우가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를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부분틀니, 완전틀니 순으로 나타나 완전틀니를 한 경우가 가장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5.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by Intra-Oral Prosthesis

Characteristics		N(%)	Mean±SD	F	P
Maxillary	Full denture	44(15.9)	1.50±.62	4.358*	.014
	Partial denture	191(69.0)	1.60±.59		
	No denture	42(15.2)	1.88±.64		
	Total	277(100)	1.62±.64		
Mandibular	Full denture	29(10.5)	1.37±.56	3.621*	.028
	Partial denture	188(67.9)	1.62±.63		
	No denture	60(21.7)	1.76±.67		
	Total	277(100)	1.62±.64		

*P>.05, **P>.01, ***P>.001

3-1) 부분틀니 종류별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
 부분틀니 종류에 따라 느끼는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는 상악의 경우 가철성, 고정성 혼합(1.81±.60), 고정성(1.73±.56), 가철성(1.53±.60)순으로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철성, 고정성 혼합(1.85±.53), 고정성

(1.66±.63), 가철성(1.57±.64) 순으로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상, 하악 모두 가철성, 고정성 혼합보철을 장착한 경우 가장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가철성의 경우가 가장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by Partial Denture Type

Characteristics		N(%)	Mean±SD	F	P
Maxillary	Removable	128(67.0)	1.53±.60	2.884	.058
	Fixed	52(27.2)	1.73±.56		
	Removable+Fixed	11(5.8)	1.81±.60		
	Total	191(100)	1.60±.59		
Mandibular	Removable	126(67.0)	1.57±.64	1.354	.261
	Fixed	48(25.5)	1.66±.63		
	Removable+Fixed	14(7.4)	1.85±.53		
	Total	188(100)	1.62±.63		

4. 일반적 특성, 구강내 상태와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와의 상관관계

일반적 특성, 잔존치아 수, 장착 보철물이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 분석한 결과, 상악 자연치수와 상관이 있는 변수는 하악 자연 치아 수(.717**), 상악보철(.571*), 하악보철(.354**), 수입(.284**)이 양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274**)와는 음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악 자연치아수와 상관이 있는 변수는 하악보철(.533**), 상악보철(.310**), 하악 부분 틀니(.276**), 수입(.241**)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는 음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악 보철과 상관이 있는 변수는 하악보철(.411**), 수

입 (.223**)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173**)는 음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악 보철과 상관이 있는 변수는 수입(.203**)이었으며 상악 부분틀니와 상관이 있는 변수는 하악 부분틀니(.733**)이었고, 나이(-.201**)는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잔존 자연치 수(상악-.274**, 하악-.244**), 구강내 보철(상악보철-.173**, 하악 부분 틀니-.229*), 상악부분틀니-.201**)과 음의 상관을 나타냈다.

가족 관계는 성별(.243**)과 양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상악 자연치 수 (.284**), 하악 자연치 수(.241**),상악 보철(.223**),하악 보철(.203**)과 양의 상관을 갖고 나이(-.144*),성별(-.149*)와는 음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rrelation of Self-Perceived Oral Health Statu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ral Health

	Teeth. Max	Teeth. Mand.	Prosthesis Max.	Prosthesis Mand.	PD. Max	PD. Mand.	Age	Gender	Family	Income
Teeth. Max	1									
Teeth. Mand.	.717**	1								
Prosthesis Max.	.571*	.310**	1							
Prosthesis Mand.	.354**	.533**	.411**	1						
PD. Max	.128	.093	a	-.049	1					
PD. Mand.	.122	.276**	-.049	a	.733**	1				
Age	-.274**	-.244**	-.173**	-.048	-.201**	-.229**	1			
Gender	-.034	.001	-.009	.117	.066	-.024	-.083	1		
Family	-.032	-.007	-.054	-.037	.032	-.034	.002	.243**	1	
Income	.284**	.241**	.223**	.203**	.092	.085	-.144*	-.149*	-.059	1

IV. 고 찰

지속적인 경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치아상실을 동반한 구강건강 문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이에 노인들의 구강내 상태가 자가인지구강건강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잔존치아 수에 있어서는 상악의 경우 1-5개 31.8%, 6~10개 25.6%, 11~15개 18.8%, 0개 17.0%, 16개 이상 6.9%이었고, 하악의 경우 1~5개 35.4%, 11~15개 23.1%, 6~10개 20.6%, 0개 10.8%, 16개 이상 10.1%로 16개 이상 치아를 가진 경우에 있어서 상악보다 하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양시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잔존 치아 수는 상악보다 하악이 많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였다고 하였다(김형우외, 1995)고 한 연구 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 내 장착 보철물에 있어서는 상악의 경우 부분틀니 69.0%, 완전틀니 15.9%, 틀니없음 15.2%로 나타났고, 하악에 있어서는 부분틀니 67.9%, 틀니없음 21.7%, 완전틀니 11.4%로 나타나 상, 하악 모두 부분틀니 장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의치 장착율에 있어서는 상악이 하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의치 장착율은 하악보다 상악에서 높게 나타났다(양순봉, 2005)고한 연구결과와 같았다.

부분틀니 종류에 있어서는 상, 하악 모두 가철성(상악:67.0%, 하악 67.0%), 고정성(상악 27.2%, 하악 25.5%), 가철성,고정성 혼합(상악 5.8%, 하악 7.4%) 순으로 가철성 부분틀니 장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철성 부분틀니의 장착은 상, 하악이 같고, 고정성은 상악이 하악보다 더 많이 장착한 것으로 나타나 고정성 보철이나 가철성 보철 모두 상악보다 하악이 더 많았다(양순봉, 2005)고 한 결과와는 다소 달랐다.

나이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를 보면 64세 이하의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를 보통(50.7%)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65세 이상에서는 나쁘다 (65-74세 47.6%, 75세이상 48.5%)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작 능력이 감소(유상희등, 2008; 유정한,2007)하고, 잔존 자연치가 줄어들며 구강 건조증을 더 심하게 인지하여 주관적 건강 인지도가 좋지 않다(장중화외, 2005)고 한 결과와 같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는 나쁘다 (47.9%), 여자는 보통이다(46.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박효정, 2007)은 남자가 여자보다 구강보전에 관심이 적고 구강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치 필요도가 높다고 하였다.

구강 건강과 관련된 가족 간의 지지는 구강건강 행위의 실천을 유도하며 구강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미라,2010). 본 연구결과 혼자 사는 경우는 나쁘다(50.8%),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는 보통이다 (47.6%)로 나타나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동거 행태가 구강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높았다(허익강외, 2010; 유상희등, 2008; 박효정, 2007)고한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있어서는 50만원 이하의 경우는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나쁘다(52.9%)가, 51만원 이상에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나쁘다(46.2%)가 가장 많았고, 이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는데, 일반적 특성이 구강영향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능적 제한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독거,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높다(박명호, 2012)고한 연구 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장,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잔존 치 수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는 상실 치아 개수와 구강건강 영향점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Locker 등 ,1994)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상악의 경우 1-5개의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1.48±.58)가, 하악의 경우 잔존 치아가 없는 경우(1.46±.62)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가 가장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잔존치아수가 많을수록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상, 하악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강 내 장착 보철물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에 있어서 상, 하악 모두(상악 1.88±.64, 하악 1.76±.67) 틀니가 없는 경우, 부분틀니, 완전틀니 순으로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를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P<.05) 의치 장착 노인이 비장착 노인에 비해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 유병율이 더 높고, 주관적 건강 수준에서 의치 장착 노인이 더 좋지 않게 느낀다(김지혜, 2009)고 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틀니 종류에 따라서는 상악의 경우, 가철성, 고정성 혼합(1.81±.60), 고정성(1.73±.56), 가철성(1.53±.60) 순으로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하악의 경우는 가철성, 고정성 혼합(1.85±.53), 고정성(1.66±.63), 가철성(1.57±.64) 순으로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 하악 모두 가철성, 고정성 혼합 보철을 장착한 경우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를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가철성의 경우가 가장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강 내 보철물이 없는 경우 가장 자신의 구강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정성 가공의치가 있는 경우가 그 다음이고,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장착한 경우는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김남희, 2003), 가철성 보철물을 편악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한 경우가 환자의 저작 능력 지수와 삶의 질 지수가 높다(허익강외, 2010)고 한 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 잔존치아 수, 장착 보철물이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 분석한 결과, 상악 자연치수와 상관이 있는 변수는 하악 자연 치아 수(.717**), 상악보철(.571*), 하악보철(.354**), 수입(.284**)은 양의 상관을, 나이(-.274**)와는 음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악 자연치아 수와 상관이 있는 변수는 하악보철(.533**), 상악보철(.310**), 하악 부분 틀니(.276**), 수입(.241**)이 양의 상관을, 나이는 음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악에 잔존치가 많으면 하악도 잔존치가 많은 경향이 있고, 상악에 보철을 장착한 경우는 하악도 보철을 장착한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수입과는 양의 상관, 나이와는 음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이 많을수록 구강 내 잔존 자연치가 많고 또한 보철 장착율도 높으며 나이가 적을수록 잔존 자연치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는 대전 및 충청도 일부지역의 노인들의 주관적 답변에 대한 분석 결과이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되며, 구강내 상태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자가인지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V. 결 론

2011년 4월 15일~5월 20일까지 대전 및 충남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내 상태(잔존 치아수와 구강내 보철 장착 상태)가 자가인지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를 나쁘다(46.2%)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통이다(44.8%)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잔존 자연치수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 상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로 치아가 많을수록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였다.

3. 구강 내 장착 보철물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는 상, 하악 모두 틀니 없음, 부분 틀니, 완전 틀니 순으로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 부분틀니 종류에 따른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는 상, 하악 모두 가철성, 고정성 혼합, 고정성, 가철성 부분 틀니 순으로 자가인지 구강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5. 잔존 자연치수와 상관이 있는 변수는 상악의 경우, 하악 보철, 상악 보철, 하악 부분틀니, 수입은 양의 상관, 나이는 음의 상관이 있었다. 하악의 경우는 하악 보철, 하악 부분틀니, 상악보철, 수입이 양의 상관이 있었다.

6. 구강 내 장착 보철과 상관이 있는 변수는 상악의 경우, 하악 보철, 수입이 양의 상관, 나이는 음의 상관이 있었고, 하악의 경우는 수입이었다. 상악 부분 틀니와 상관이 있는 변수는 하악 부분틀니이었고, 나이는 음의 상관이 있었다.

REFERENCES

Cockerham WC., Sharp K., Wilcox JA. Ag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Journal of Gerontology* 38(3), 349-355, 1983.

Choi SL, Jeong SH, Bae HS, Ryu YA, Choi YH, Song KB. A Study of Dentur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Recipients of the Senile Prosthetic Restoration Program for national Base Live-

- hood Secur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9(4), 474-483, 2005.
- Choi YH, Kyun HK, Kim BH. The baseline study of the denture treatment program for lower socio-economic elderly people. The journal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40(12), 988-995, 2002.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National Oral Health Survey.
- Hur IG, Lee TY, Dong JK, Hong SH. The Effects of Dental Prostheses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 Society. 48(2), 101-110, 2010.
- Jang JW, Baik Sh, Kim AJ, Jung SH, Kim OS, Kim SH. The Effect of Xerostomia on Perceived Oral Health among Elderly People Wearing Dentur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9(4) 474-483, 2005.
- Jeon MJ, Kim DK, Lee BJ. The Study on Evaluation of The Denture Delivery Program at the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33(3), 377-387, 2009.
- Joo OJ. A Study on The Self-Perceived Relationship of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s in the Korean Elderly.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2009.
- Kim DK, Lee BJ, Moon HS.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subsidized Denture Prosthetic Program for the Elderl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8.
- Kim GH. A Study on the Connection of Two major Oral Diseases and Smoking the Elderly in Accordance with Denture.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Association. 11(1), 13-23, 2009.
- Kim HW, Kim CW, Kim YS. A Clinical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omplete Dentures Pati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Society. 33(3), 440-452, 1995.
- Kim NH.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erceived Oral Health of the Elderl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 Lee MR. A Study on the Effects of Self- Perceived Oral Health Status on The Quality of Life: PRECEED Model Appli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Oral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Gachon University. 2010.
- Locker D, Slade G. Association between clinical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oral health status in an older adult population. Gerontology 11(2), 108-114, 1994.
- Park HJ.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ance of Needing Denture Oral Health Condition and Oral Health Behavior.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2007.
- Park JH, Jeong SH, Lee GR, Song KB. The impact of Tooth loss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Seongju, Korea.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32(1), 63-74, 2008.
- Park MH. Factors that Affect Oral Health Impact Profile for Elderly.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2012.
- Yang SB.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5.
- Yu JH. Evaluation of Chewing Ability of Korean

Adults using Mixing Ability Index.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Dentistr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7.

Yu SH, Kim YL, Lee HS.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32(4), 575-586, 2008.